



순창읍 창림마을이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순창 창림마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

마을 곳곳에서 요일별 식당·소소한 방앗간·공예방 등 운영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색다른 공간으로 도시민들 불러들여

순창읍 창림마을이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이 지난 2015년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 기존의 창림마을을 문화예술적 요소를 가미해 지금의 창림문화누리마을을 탄생시켰다. 현재 창림문화누리마을이 좋아 정착한 15여명의 여성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문화관광명소로 지역을 이끌고 있다. 조성 당시에도 군과 민이 협력해 양방향 행정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 받았으며, 현재도 마을 주민 스스로 곳곳에 예술적인 향

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유부엌 성격의 요일별 식당(미술), 소소한 방앗간, 공예방(등, 죽, 옷감 리사이클)으로 운영한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색다른 공간으로 지역민을 비롯해 인근 대도시 도시민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외에도 소농(小農)으로서 직접 생산하고 만든 물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촌시장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그마한 문화공연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 서울동작 마을발전소, 순천 슈름시장과도 교류하는 등 다양한 활

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순창군 도시재생차원에서 군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마중물 성격의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구체화하고 있으며, 순창의 중심부인 중앙로와 인접한 문화누리마을을 엮어 '창림 골목(小路)과 중앙로(大路)의 순창재생 하모니'이름으로 하반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창림문화누리마을이 순창군에 생기를 불어넣는 대표 마을로 자리매김 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창림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점차 확산돼 순창읍 곳곳이 문화공간으로 변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익산 주얼펠리스 보석대축제 개최... 오색찬란한 보석 한 자리에

23일부터 보석테마관광지 일원서 열려

익산시는 형형색색 아름다운 보석을 만나볼 수 있는 '2019 주얼펠리스 보석대축제'가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 익산 왕궁면에 위치한 주얼펠리스와 보석테마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사)주얼펠리스협의회가 주관하고 전라북도, 익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60여개의 보석 전문 업체들이 선보이는 화려하고 희귀

한 보석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 특별할인행사(24K, 다이아몬드 제외)도 진행돼 보석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얼리 우수작품 특별전시, 개인 소유의 보석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보석 리세팅, 보석 카페 운영, 보석 가공 시연, 주얼리 콘서트(주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과 숙련된 장인의 솜씨로 빛어낸 주얼리 작품 전시

와 다양한 체험행사는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주얼펠리스협의회(063-834-5100), 익산시청 한류패션과(063-859-438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내 최고의 귀금속보석 판매센터인 주얼펠리스에서는 매년 봄, 가을 2회 보석대축제를 개최하여 보석의 도시 익산만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깊어가는 가을에 만나는 사랑의 교향시 '오텔로'

덕진예술회관에서 22일부터 27일까지 공연

전주시립극단(예술감독 이종훈)이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시민들의 문화향연을 위한 정기공연을 펼친다.

전주시립극단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덕진예술회관에서 가을 정기공연 작품으로 준비한 '오텔로'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평일(화~금) 오후 7시 30분, 주말(토~일) 오후 4시부터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오텔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원작 속 전장터를 진두지휘 하던 장군 오텔로는 전쟁 같은 영화관을 진두지휘하는 영화감독으로, 여주인공인 데스데모나는 무비퀸으로 바뀌는 등 현대적으로 옷을 갈아입은 영화관의 사랑과 질투, 갈등 그리고 몰락을 그리고 있다.

전주시립극단은 자체 기획한 명작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이번 공연에 이어 매년 가을 정기공연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헐릿', '리어왕', '맥베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티켓은 인터파크(1544-1555)에서 예매



가 가능하며, 예약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극단(063-275-104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장수군이 군민의 문화공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15회 산골 국악한마당 공연이 17일 오전 10시부터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무료로 열린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국악의 향연

장수 한누리전당서 내일 산골국악한마당

장수군이 군민의 문화공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15회 산골 국악한마당 공연이 17일 오전 10시부터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무료로 열린다. 장수군이 주최하고 (사)금강유영애소리보존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제23회 장수읍 노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화현과 바라, 단막극 '놀부와 마당쇠' 남도민요, 판국과 버구·북춤 등의 다양한 작품이 선보인다. 유영애 명창(제2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예능보유자)은 "제15회 산골 국악한마당이 장수읍 노인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만큼 어르신들과 함께 다양한 신명나는 국악의 향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